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4월 13일(일) 제1536호

고난주간과 창조질서회복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온누리M미션 성도들이 특순하고 있다.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회 '다시 오실 어린양' 창조질서회복캠페인 헌혈,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등 실천

4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고난주간이다.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번 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난주간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 침묵으로 기도한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기도하고,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한다.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자신의 죄와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을 하면 된다.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 주제는 '다시 오실 어린양'이다. 4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 온

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4월 14일(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마 24:1~14), 15일(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마 24:34~51), 16일(수) '항상 깨어 있으라' (마 25:1~13), 17일(목) '낭비하지 않는 인생' (마 25:14~30), 18일(금) '작은 자를 섬긴 자의 상급' (마 25:31~46)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실천도 이어간다. 2025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마지막 주 주제는 '생명'이다. 월요일(4월 14일) 가정과 일터, 학교 등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고, 화요일(15일) '반려동

물과 함께 산책하기', 수요일(16일) '헌혈하기', 목요일(17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시청하기', 금요일(18일) '중독의 심각성 인식하고 대응하기' 등을 실천한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참여 후기를 사진과 함께 소감문으로 작성해서 4월 20일(일)까지 이메일(onnuri.lent@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참여 굿즈를 보내준다. 차세대도 4월 19일(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한다. '사순절 성경쓰기'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Bye Bye 플라스틱'을 한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온누리교회가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다. 4월 12일(토)과 13일(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한다. 경북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열흘 동안 이어졌다. 의성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에 걸쳐 피해 면적이 4만8천 헥타르(ha)나 된다. 주택 4,238채, 농업시설 3,151곳이 소실됐다. 이재민 3,675명, 사상자 83명(사망자 31명, 중상 9명, 경상 43명)이 발생했다.

CGN에서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교회를 지원하는 '2025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5월 30일까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 전액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된다.

한편 온누리교회는 3월 31일(월)부터 4월 4일(금)까지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과 청송군 진보면, 의성군에서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2025 회복축제 '온전함'

5월 14~16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및 선교관

2025 회복축제가 '온전함'을 주제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선교관에서 막 오른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4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 5만 원).

2025 회복축제 '온전함'에서는 회복 관련 저명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고병인 교수(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채규만 교

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호선 교수(송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남윤영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류경숙 박사(강남GEM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박상미 교수(한양대 대학원),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조영진 교수(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회장)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15-3532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Wonderful Life' 희망콘서트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Wonderful Life' 희망콘서트가 열린다. 4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B1)에서 진행된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보컬밴드 크룩

스, 색소폰 김선민, 가수 신인선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Wonderful Life' 희망콘서트는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와 전도본부, 온누리복지재단이 주관한다.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13일, 20일, 27일 각 캠퍼스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한다. 4월 13일(일)과 20일(일) 양지온누리교회, 4월 20일(일)과 27일(일) 서빙고, 양재, 부천,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 양지는 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기증함에, 인천, 남양주,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윌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 수거한다. 굿윌스토어는 성도들이 모아준 기증품을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굿윌스토어 기증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문의: 1533-0091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백성과 밀접하게 그 방법과 강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들과 관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경고성으로 주어지는 심판은 함께 겪게 하시지만, 최후의 심판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인류가 겪는 보편적인 악에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다릅니다. 어린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경고성 심판 가운데서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경고의 심판이 주어졌지만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순교를 통해 더 많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일곱 나팔이 주어진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 정적이 감도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러진 모든 기도가 땅으로 내려온다

금향로에 많은 향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3~4절). 성도들의 기도와 금향로의 향연이 함께 드러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열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인가가 추가되어야 하

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희생이 함께 드러져야 하나님이 열납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정적이 흐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도,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 하나님이 귀 기울어십니다.

천사가 향로에 나는 향연과 기도와 함께 거기에 불을 채웁니다(5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천둥과 번개, 지진이 일어나 땅에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러지고, 그 기도가 불과 함께 다시 땅으로 심판이 되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러진 모든 기도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재단 아래에서 울부짖었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 계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계시하신 의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알려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종말이 올 때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

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나팔소리는 훨씬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일곱 번째 달 10일인데,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이 대속하는 속죄양에게 부여됨으로 인해서 그 백성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도구가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하면 또 연상되는 사건이 여러고 정복사건입니다. 여러고를 정복할 때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잡고 성을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일곱 나팔을 일제히 길게 불면서 큰 소리를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고, 완전한 승리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일곱 나팔의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 재앙이 연상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입니다. 땅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이 애굽 전역에 쏟아진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헛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또한 나일강의 오염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늘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출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대응을 이룹니다. 나팔재앙들이 출애굽과 병행을 이루게 나타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예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의 마지막을 내다보게 합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한 세트를 이룹니다. 네 가지 앞에 나오는 재앙들은 성도들도 함께 겪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구분과 비슷하게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도 네 번의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주

어지는 재앙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곧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직접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용광로 같은 연기가 나오면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2억 명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멸망당하는 재앙입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악한 죄인들은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우상을 찾았습니다(20~21절). 이 완악함은 〈출애굽〉에도 나옵니다. 바로가 열 번의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해진 영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 나팔까지 기간을 두시는 이유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의 재앙에도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일곱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계 11:15).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여러고 앞에 서 있고, 다시 출애굽 앞에 서 있습니다. 침묵하며 여러고 성을 들었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때로 순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반드시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역사를 향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인문학

묘지기의 질문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장 폴 사르트르는 죽은 자들의 글을 읽고 세상에 전하는 자신의 일을 ‘묘지기’에 비유했다. 망자의 어록과 문헌을 뒤지는 건 지금 시대의 인문학자가 여전히 하는 일이다.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이만한 질문을 하려면 묘지기의 삶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인본주의에 관한 옛 문헌을 들춰보면 답을 쉽게 찾을 것만 같다. ‘모던(modern)’은 ‘새롭다’ 혹은 ‘다르다’를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 모던한 세계에서는 신비롭거나 예측할 수 없는 힘이 폐기된다. 계몽주의 서사가 넘친다.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인간 주체만이 의미의 창조자다.

그렇지만 인간이 신의 역할을 감당한 세상은 가혹하고 혼란스러웠다. 20세기 문헌에서는 그런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원리가 탐색된다. 무의식이든, 계급이든, 언어와 기호든, 인간 경험을 구성하는 심층적 의미체계에 관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신 마르크시즘 문헌에서는 이항의 경제계급으로 구조화된 사회계급이 냉소적으로 논평된다. 의미는 이념화된 구조에서 온다.

포스트구조주의 문헌에서는 보편적인 의미구조가 의심된다. 언어와 실재 사이의 상응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규범에 근거한 오랜 진리조차 특수한 해석을 요구하는 허구의 대상이다. 공간도, 의례도, 상징도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전통에 반하고 혁신적이라면, 미디어에서 친밀하게 유통만 된다면 무엇이든 진리

의 자리를 차지한다. 인정과 욕망은 의미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다. 의미는 누구나 생성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빈터에서 인문 지식은 그렇게 경합하면서 지배적인 이념으로 군림하다가도 쉽게 힘을 잃는다. 인본주의는 진보를 낙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기적이고 파행적인 문화를 부추겼다. 구조주의는 의미의 질서를 찾아낸 듯했지만, 인간을 구조의 담지자(생명이나 이념 따위를 맡아 지키는 사람)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임시적이고 유희적인 지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신유물론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범우주적 세계관으로 모든 존재를 평등한 행위자로 위치시키는 만큼 의미 탐색을 사변적으로 겹돌게 한다.

하나님은 감춰지고, 인간마저 밀려나면서 구조의 질서와 물질의 통치가 과장되고 있다. 유물론을 혹평했던 C.S. 루이스의 논법을 빌리자면, 그런 지식은 언어나 물질 너머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청지기 사명을 사라지게 한다. 인간에게 특권과 책임을 부여한 창조주가 지워지는 만큼 우리 중 다수는 방황하는 햄릿이 되거나 ‘소확행’을 좇는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무덤가의 지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실존적 고민을 하기엔 최적화된 공간이지만, 편견과 불안으로 가득한 곳이다. 지식의 편린으로 헤안을 얻을 때도 있겠지만, 묘지기는 더 많은

문헌을 뒤져야 한다는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 내가 만난 수많은 인문 지식인도 그러했다. 협소한 토대에 정박한 문헌을 근거로 서로 다른 사유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높이든 재단하고 힐책한다. 앞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초월과 계시에 냉담하다. 의미의 진원지가 뒤엉키면서 당위적인 주장만 반복되면 부당전제의 오류에 빠진다. 모두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지성의 한계다.

돌아보면 나도 묘지기 인생을 살았다. 내 분야만의 전망이나 당대 권력의 이념에 휘둘리며 거창하게 보이는 문헌들을 탐독했다. 낯설지만 정교하게 구성된 논술이 매혹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팔호에 넣은 인문 지식은 내게 영리하고 매물차게 세상을 보도록 가르쳤다. 나는 낡은 가족 부대를 많이도 수집했지만, 하나님의 궤적에서 벗어난 지식은 울무에 걸린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게 가장 감동적인 복음서 장면 중 하나가 무덤가에 머물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무덤가를 떠나 “내가 예수를 보았다”(요 20:18)며 제자에게 달려가는 장면이다. 그걸 묵상할 때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보였다. 하나는 무덤가를 평생 지키며 혼자서 애쓰는 인생이다. 소쉬르, 듀이, 푸코, 들뢰즈와 같은 죽은 자의 위대함을 소환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정당화한다. 다른 하나는 무덤가를 떠나는 인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새 여정을 시작한다.

묘지기의 삶에서 나는 자유롭고 평안했던가? 죽은 자의 지식은 나를 온전히 위로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의식, 언어, 관습, 사물의 지식만으로는 생명과 평안이 연원 될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 예수님이 밤새워 수고한 베드로를 위로한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신다. 무덤가에 그만 미련을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영원한 말씀’이며 동시에 번역된 말씀인 그리스도 앞에서 지식선교라는 굵아진 길을 마주하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제는 용기 내어 그 길로 걸어간다. 묘지기의 지성은 비분강개와 자기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나 이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무덤에 머물렀던 나와 동역자들의 옛 지식과 경험을 창조적으로 다시 번역할 것이다.

“...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났습니다”(고후 5:17).

모든 의미 생성과 변화의 진원지이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신동일 집사
(서초A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성금요일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상처와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반응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 19:28).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7~38).

“...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1755년 만성절에 세상이 바뀌었다. 포르투

갈 리스본에서 10분 동안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화재 등으로 약 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독교의 성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이 무너진 교회 밑에 깔렸다.

윤리학자인 수잔 나이먼에 따르면, 많은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이 자연적 해악 사건은 신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시에서 가차 없는 말을 퍼부었다.

“그럼 당신은 확신하는가? 우주를 창조하고 운명의 법칙을 바로잡는 그 능력을, 인간이 있을 적절한 처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진으로 인류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신뢰가 신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갔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몇 세기는 기술과 과학적 진보, 성경에 대한 학문적 비판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현대주의가 절정이었던 20세기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아우슈비츠, 핵으로 인한 인류 전멸의 위협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기계적으로 살육당했다. 이렇게 신도, 사람도 신뢰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십자가는 윤리적이며, 자연적인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라고 예언했다.

십자가는 볼테르가 상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인간의 악이 최종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한때 목마르셨다. 그는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세상의 존재로 인해 우리와 같이 피를 흘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 고통의 세계로 들어와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고난을 이기셨으며, 이제 이를 증명하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다. 볼테르 이후 거의 2세기가 지나서 신학자였던 에드워드 실리토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매

우 다른 관점의 시를 썼다. 이 시의 두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그 어떤 것도 간절히 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둠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별이 되시는 분. 주님의 눈썹을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씌니다. 우리에게겐 흉터의 예수님, 당신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께서는 약하셨습니다. 그들은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주께서는 비틀거리며 보좌까지 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주의 상처만이 위로가 되며, 그 어떤 신에게도 없었던 상처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금요일에 우리는 하나님, 상처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선포한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원문: breakpoint(20220415)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의 장(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양주아 성도 가정(왼쪽), 이주혁 성도 가정(오른쪽).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이를 바라보라’가 어느덧 마지막 한 주를 남겨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증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가족이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있다는 간증이 많았는데,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양주아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가정과 이주혁 성도(SNS공동체) 가정이다.

아주 특별한 은혜와 기쁨

양주아 성도는 민시원(9세), 민한나(5세) 자매를 데리고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양주아 성도가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새벽기도에 다녔던 경험이 신앙에 큰 자산이 되었기에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와 기쁨도 나눴다.

“첫째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감사와 기쁨이 아이들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엄마 옆에서 두 눈을 반짝이던 민시원 어린이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

이주혁 성도는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아내 정두리 성도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 지금은 자녀 이소금(5개월)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주혁 성도는 가족과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고백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금이와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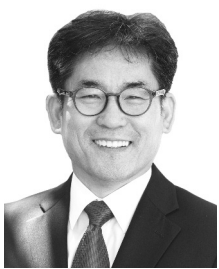
이주혁 성도는 40일 새벽기도회 완주가 목표라고 했다. 기도제목도 나눴다.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40일 새벽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불어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부모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기도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특별기고

회복의 시작, 십자가로부터!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은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죄의 값을 스스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죄의 값은 곧 사망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짊어줄 대상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은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다. 예

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분이 죽어주시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다. 성령님 또한 사랑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고난주간은 교회의 그 어떤 절기보다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감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일 년 내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살면 좋겠지만,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더 깊이 있게 그분의 고통과 사랑, 긍휼이 담긴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분의 희생이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엄밀히 말해서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사랑과 은혜를 먹어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고난주간을 자신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소홀히 여기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기회

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영향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은 죄의 영향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났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롬 8:22).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만 저주받게 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인간만 죄의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자연도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연도 회복을 시작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사순절에 교회가 창조질서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유다.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창조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곧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온 천국!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아주 특별한 방문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은 매월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있다. 그들의 아주 특별한 방문을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사회선교본부 서빙고 이웃사랑팀과 함께 S브릿지공동체 이웃사랑팀(이하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사는 홀몸 어르신들의 집을 찾는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벗이 되어 드린다. 건강은 어떤지, 지난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TV에서 본 드라마는 어땠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묻고 답하며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만들어진다.

나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S브릿지 이웃사랑팀은 2021년부터 이 사역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한복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르신들의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찾아가는 것 말고는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었기에 결단을 내렸다. 당연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사역이 그렇게 시작됐다. S브릿지공동체 자체적으로 이웃사랑팀을 만들고, 사회선교본부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안 그래도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까지 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예수의 사랑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선 것이다.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사역은 한시적인 게 아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매월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지역상품권과 반찬 등을 전달한다. 결코 물질적인 도움만 드리는 게 아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른다. 홀몸 어르신들이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방문을 ‘한 줄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홀몸 어르신들에게 S브릿지 이웃사랑팀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잊지 않는 존재’이다.

김동숙 어르신(74세, 보광동)은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방문하는 날이면 심장이 요동친다. 평소에는 TV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데,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방문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방문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이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오는 날만 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너무 기대돼서 옷도 예쁘게 입고 기다린다니까요. 평소에는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S브릿지 이웃사랑팀만 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요. 나는 결혼을 안 해서 가족이 없는데, S브릿지 이웃사랑팀 덕분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김동숙 어르신이 처음부터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방문을 반긴 것은 아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첫 방문 때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S브릿지 이웃사랑팀에게 포기란 없었다. 김동숙 어르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철마다 맛있는 과일을 가져가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햄버거를 사다 드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다. 항암치료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위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침대도 선물했다. 어디 그뿐인가. 길이 좁고 가파른 동네라 침대 배달이 안 되다 고 해서 직접 그 큰 침대를 어르신 집까지 옮겨 드렸다. 그 정성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그 까칠하던 김동숙 어르신이 눈물을 보이며 S브릿지 이웃사랑팀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 지금은 누구보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열렬한 팬이 됐다.

이정림 팀장(S브릿지 이웃사랑팀)은 홀몸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금은보화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홀몸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모진 말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찾아볼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동안 속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금은보화를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어르신들의 미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소 한 번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박순정 어르신(80세, 보광동)도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 버선발로 뛰쳐나와 반긴다. 또듯하게 아랫목을 데워줬다가 내어주는 큰 사랑을 주면서도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몹시 미안해하신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끔 오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종일 벽만 보고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해서 입술이 말라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나를 잊지 않고 매월 찾아와 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기쁘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아들밖에 없는데, 살가운 딸들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박순정 어르신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다가 S브릿지 이웃사랑팀이 일어날 때가 되면 옛날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신다. 그들이 가는 게 못내 아쉽고, 조금이라도 사람의 온기를 더 느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박지혜 자매(S브릿지 공동체)는 박순정 어르신에게 같은 이야기를 열댓 번도 더 들었지만, 그 마음을 알기에 지겹지 않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의 방문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더 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기에 같은 이야기라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더라도 더 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분들에게 삶의 작은 기쁨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존재는 홀몸 어르신

들에게 단순한 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방문이 어르신들에게 웃음꽃을 피워주고, 메말랐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그 아름다운 섬김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리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그저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S브릿지 이웃사랑팀 모두가 겸손했다. 김신실 자매(S브릿지공동체)는 홀몸 어르신을 섬기는 일은 ‘작은 선함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했다.

“故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 인터뷰에서 ‘파뿌리 하나와 같은 선함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작은 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에서의 섬김은 그 작은 선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를 만날 때마다 무척 행복해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은주 자매(S브릿지공동체)는 홀몸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전할 때마다 천국이 가까워진다. 누군가의 마음에 스며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손꼽아 기다려지는 발걸음에, 외로움을 덜어주는 손길 속에 천국이 존재한다. S브릿지 이웃사랑팀의 섬김이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바꾸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웃사랑팀 사역 문의: 010-9802-2395

성경 속 식물 그림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로 듣는 하나님의 위로



김준영 권사
(온누리 아트비전 팀장, KCAF 운영위원장, 로렐갤러리 큐레이터, 에제르화실 원장)

추운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왔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연초록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는 신비로운 광경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씨를 여실히 보여 준다. 움트는 줄

기와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쫄쫄 얼어붙은 마음에 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에 짓눌려 고개를 떨군 채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27~32).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친히 자녀 삼아 주신 아바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 염려를 떨쳐내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천으로 피어 있던 ‘들에 핀 백합화’였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 백합화가 아니었다. 향기가 진한 순백색의 꽃잎을 가진 그 백합화는 들에 없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꽃 역시 성경이 다른



〈들에 핀 백합화〉 60.5×43.5cm (12호 변형), Mixed media on canvas



〈열매-은혜-찬양〉 24.2×72.6cm (4호 정방×3), Mixed media on canvas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는 없는 야생화를 ‘들에 핀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그 꽃은 갈릴리의 산야에 흔하게 피어나는 야생화다. ‘아네모네’나 ‘개양귀비’ 같은 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들에 핀 백합화〉속 꽃이 바로 이스라엘 성지의 메마른 돌 틈이나 작은 웅덩이 사이에서도 꽃꽂게 피어나는 개양귀비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하늘하늘 피어 있는 그 작고 붉은 꽃은 그 어떤 귀하고 화려한 옷보다 내 눈에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작업한 ‘들에 핀 백합화’라는 제목의 이 그림 배경으로 표현된 돌과 웅덩이는 색감을 절제하고, 물감도 약하게 입혀 마치 스케치처럼 표현했다. 반면, 은혜의 단비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선으로 작업하고, 그 바람을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는 빨간 개양귀비꽃은 밝고 선명한 다홍색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작업했

다. 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께 의탁하며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 올리려 하는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늘도 큐티(Quiet Time)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

성도에게 아침 큐티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겸허히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몇 년 전 온누리 아트비전 예배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큐티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린 그림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각자 독특한 시선과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림을 보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그림으로 ‘크리스천 아티스트 큐티 그림 연합 전시회’를 개최해 복음과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그림 〈열매-은혜-찬양〉은 큐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세계의 4호 정방 캔버스에 각각 작업한 그림을 나란히 이어 붙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각 그림이 왼쪽부터 순서대로 ‘열매 맺는 삶’, ‘은혜의 단비’, ‘찬양하는 우리’를 나타낸다. 가장 오른쪽 그림이 바로 들에 핀 백합화인 개양귀비꽃이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빨간 꽃을 그리며 환하게 기쁨으로 웃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기쁨의 존재다. 할렐루야!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저서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다. 우리의 인생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란다. ‘백합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있어서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찬양 ‘만족함이 없었네’, 최영택 작사).

이 찬양 가사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구석구석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다.

“그러한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3-34).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섬기기를 바란다. 더는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삶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오른다. 더욱이 내 내면에 숨겨진 세상적인 악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면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된다. 내 의지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맛있는 말씀 해설

“...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전 9:11)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다.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항상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전쟁에서 용맹한 병사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러한 인생의 역설을 담고 있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일반인들 에게도 고민이 되는 말씀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 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전 9:11).

학창 시절부터 노력과 실력이 ‘성공의 열쇠

’라고 배웠던 우리는 이 본문을 처음 접할 때 당혹감을 느낀다. 성경은 마치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는 듯하다. 특히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 으며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마지막 지 점이다.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이 문장의 의미는 인생의 성공이나 결과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반대로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시기와 기회’, 즉, 타이밍과 우연한 기회가 인생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말한다.

이 구절을 또 다른 번역본 〈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 번역은 기회보다는 위기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삶에 불가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과 누구도 예외 없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많은 신앙인이 깊은 고뇌에 빠지게 만든다.

〈전도서〉 저자는 단순히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신의 치열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 한계를 직시한다. 아무리 뛰어난 경주자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할 수 있고, 최고의 전략가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사업가가 20년 동안 성실히 일구어온 회사가 산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았다. 그 사업가는 자신의 노력과 전략이 무용지물(無用之物)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시기와 기회’라는 요소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체념과 포기를 권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지혜를 가르친다.

〈전도서〉의 이 표현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갖는 초연함이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않는 평정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혜는 진정한 성공이란 결과물의 크기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신실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다.

결국 〈전도서〉 9장 11절은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실력 너머의 더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일깨운다. 우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길

4월 14일~4월 20일
고난주간-부활절 QT

목상포인트

1: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

갑니다. 잡히는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목상포인트 2: 예수님이 찢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불의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목상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긴 것을 안다. 빌라도가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석방하려 하자, 무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 제삼시(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제육시(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구시(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라고 외치신다. 예수님이 큰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진다.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고 돌을 굴러 막아 둔다.

목상포인트 3: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

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보고 듣고 전한 부활에 대해 목상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가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 흰옷을 입고 무덤 안에 앉아 있던 한 청년(천사)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악한 농부의 모습을 신앙인의 반면교사로 삼자. 완악한 종교인이 아닌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섬기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떡과 잔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몸을 찢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해 부활 신앙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언니를 위하여!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도 지병으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저와 동생은 당시 중학생, 초등학교생이었습니다. 언니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교육 하나 없이 스스로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만큼 성실했던 언니는 모든 재능과 가능성을 뒤로한 채 가족의 생계와 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언니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만큼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아버지의 치료로 생긴 빚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회사 사정으로 형부의 수입이 불안정해져 생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언니가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나던 모습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고 잘했는지도 잊은 채 살아가는 언니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믿음조차 희미해져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언니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위로와 믿음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평강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오랫동안 짓눌렸던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며, 언니의 삶이 다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아가신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교훈과 겹세마네 기도를 목상하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신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들(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예수님)까지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이 메시아까지 죽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감람산의 겹세마네로 가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

멘토가 멘티에게

무너질 것인가? 발견할 것인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시련과 고난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더는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에서 온누리신문 <멘토가 멘티에게> 코너 원고를 부탁받았다. ‘무엇을 쓸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졌다.

이집트 나일강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나일강 상류인 에티오피아 수단 고원에 매년 같은 시기에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람기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 땅을 깊게 갈거나 거름을 주지 않더라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년이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 지상 천국처럼 여겨졌다. 이집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간 곳,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간 곳, 아굽과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간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굽의 후손들은 기근이 끝난 후에도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나 왕조가 바뀌자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어야 했다. 부족함 없는 현제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히

브리인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라 지적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지만, 혈기를 다스릴 줄 몰랐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몰아 자신을 낮추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켰다.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면 당장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눈 앞에 펼쳐질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메마른 광야와 싸움닭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히브리인들은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냈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 가나안을 원했지만, 광야에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광야는 시련이요, 시련은 광야다. 그러나 시련의 끝에는 가나안이 있다. 중요한 것은 ‘광야와 같은 시련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인가?’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광야를 보았다. 아스완에서 아부심벨로 가는 길, 룩소르, 후루гада, 카이로를 가는 길이 온통 광야였다. 눈 닿는 데까지 이어지는 모래 언덕과 바위산에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이 있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달리던 차를 세워 근처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낙타와 양 떼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몇몇 목동들이 기다란 막대기를 휘두르며 양 떼를 몰았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 황량한 곳에서 양을 먹이겠다며 물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들에게 달려가 “풀 한 포기 없는데 양들에게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아침 이슬만으로도 자라는 작은 풀이 있으며, 양들은 그것을 먹는다”고 대답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바위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메마른 곳에 이슬이 내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데 샘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곳에 무언가 있다고 했다.

그곳 광야에 무언가 있다.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될 때, 또는 내 삶이 사막처럼 버려졌다고 여겨졌을 때 그곳에 무언가 있다. 작은 풀에 생명이 되는 이슬처럼, 거친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샘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날은 안토니오 수도원을 보기 위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를 맞이한 검은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는 80이 넘는 연세에도 눈빛이 여전히 형형했으며, 말투에는 여유가 넘쳤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무척 반가워하면서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표정과 말에서 진실과 사랑이 묻어났다. 거칠고 메마른 환경에서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인품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곳,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곳, 화심한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곳 모두 광야였다. 사랑 깊은 수도사처럼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게 있다.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그대들에게 광야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기를 바란다.



임찬웅 멘토
(남양주B공동체)

이슈(Issue) 바로보기!

과학혁명, 교육으로 시작, 연구로 성숙, 창업으로 완성

과학혁명은 16세기 서양에서 태동한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유발되었다. 근대사회가 시작되던 시기의 교육은 개인 교사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왕족과 귀족이 문자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후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 계층이 종교 혁명 세력과 연합해 지식의 대중화를 추구하면서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신흥 상인들은 학교를 짓고, 자금을 제공했으며, 종교 개혁자들은 사제 계급이 독점하던 성경을 평신도가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제공하면서 교사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사립학교로 출발했으나 지식 교육이 공공 영역으로 정의됨에 따라 공립학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중 지식 교육의 영향력은 위대했다. 문자와 지식의 독점이 사라지자 왕족과 귀족의 특권이 약화되었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단지성의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다. 종교 혁명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혁명으로 이어졌고, 두 세기가 지나 시장경제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는 두 세기가 더 지나면서 지식혁명으로 이어졌다.

지식혁명의 결과로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10억 명에서 70억 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시간도 주당 8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획

기적으로 감소했고, 기대 수명도 35세에서 100세를 바라보게 되었다.

학교의 태동이 과학혁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연구의 태동은 과학혁명을 성숙시켰다. 연구의 기원은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국방의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한 호기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사를 돌아보면 동서고금 관계없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은 군사력이다. 따라서 남보다 앞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기, 컴퓨터, 인터넷, GPS 등과 같은 기술도 국방과학에서 먼저 연구되어 민간 분야로 넘어와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를 불러왔다. 또 다른 기원은 르네상스 시기,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와 과학주의가 발전하면서 여유 시간이 많은 귀족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연과학 연구가 귀족에서 평민으로 넘어가면서 호기심보다는 현실 문제와 융합되었다. 그리고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폭발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혁명을 유발했다.

과학 연구는 질적 분석에서 양적 분석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생활에 엄청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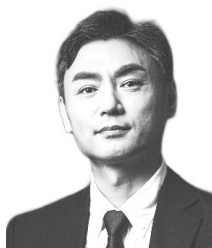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세계관의 변화로 수학, 물리학, 화학, 핵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켰다. 연구가 사회에 끼치는 대단한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연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제 연구 활동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특히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그 국가의 과학기술을 다룬 연구논문 수와 큰 상관관계로 비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5년 이내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는 기업 연구소가, 공공 영역과 함께 10년 이후의 국가 전체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특히 연구중심대학은 기초연구나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연구를 담당하면서 연구 성과 자체보다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성숙한 과학혁명은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면서 열매를 맺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시작해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이후 지식혁명을 통한 지식집약적 신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약적 경

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식집약적 신산업은 연구자와 관련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혁신 시스템이 필요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연구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화하는 시스템은 미국에 의해 구축된 벤처 창업 생태계를 통한 혁신이다. 미국은 벤처생태계를 통하여 혁신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듯 과학혁명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로 성숙하고, 창업으로 완성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와 벤처는 모든 나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연구와 벤처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온다. 교육, 연구, 창업이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에서도 참

여자 50%가 일터사와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학생과 이민자, 대학교육과 연구, 창업과 투자가 선교와 연계되도록 교회적인 관심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박성진 교수
(OCC공동체, 포스텍교수)



지난해 열린 '2024 행복이음 축제'.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강동, '2025 행복이음 축제' 개최

강동온누리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를 연다. 오는 4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 앞 광장에서 '2025 행복이음 축제'가 막 오른다.

2025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부활절 달걀 나눔을 비롯해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부스, 평강 포토존, 강동

연합찬양사역팀과 강동 온유대학부의 워십, 서초C공동체의 특별 순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예술가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무대도 준비했다. 뮤라벨 성인전문음악학원, 경희대 천호 태권도, 유소이 캘리그래피 작가 등이 함께한다.

강동온누리교회는 지난해 부활절부터 '행복이음 축제'를 열었다. 기

독교 세계관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난타, 버스킹, 워십,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천호로데오거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감소비운동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월요어노인팅 집회, '월요치유집회'로 명칭 변경

매주 월 오후 7시 20분 서빙고 비전홀

4월부터 월요어노인팅집회 명칭이 '월요치유집회'로 변경됐다. 월요치유집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에서 열린다. 월요치유집회에서는 육신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김성진 장로가 인도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5월 11일까지 '아트비전 회원전'

온누리 아트비전이 아트갤러리(온누리 청소년센터 2층) 개관을 기념하며 '아트비전 회원전'을 개최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5월 11일까지 아트갤러리에서 이어진다(매주 월요일 휴관). 온누

리 아트비전 소속 작가 26명이 신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판매도 하고, 수익금 일부는 사회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10-2321-6494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 서빙고 화요저녁반

4월 22일~5월 27일 매주 화 오후 7시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 서빙고 화요저녁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동아쇼핑센터 312호(구 302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29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중동 분쟁과 그 해결점 모색',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보는 영화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080-1067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3-84104(온누리세계관학교)

와이무슬림 양재 토요오후반 모집

와이무슬림 양재 토요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17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의 예

수이해',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등을 주제로 강의와 이슬람권 예배 참관 및 이슬람 사원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6302-3482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6-97204(이슬람선교학교)

창조과학 붐탐사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 붐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토)과 18일(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통리계곡 고생대박물관, 삼척시 대금굴 단구지형 등지를 돌아보며 창조신앙을 공부한다. OBC 1학점을 인정해 준다. 참가신청은 5월 12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문의: 010-3334-2388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19-58205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를 모집한다. 4월 27일(일)까지 디자인, 조명, 카메라, FD, 커뮤니케이션, 싱어, 새가족 등을 섬길 성도가 대상이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2-570-7430

Point5공동체 찬양팀 세션 모집

Point5공동체 찬양팀 세션을 모집한다. 일렉기타 1명을 구한다. Point5공동체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홀에서 열린다. 합주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한다.

문의: 010-2531-7610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5월 26~27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5월 26일(월)과 27일(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AI 기술과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미래 교회의 목회 전략을 모색하고, 미디어 사역에 AI 트렌드를 접목하는 실제적이고 유의한 강의와 세미나를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덕진 소장(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혁 교수(고려대학

교 컴퓨터학과), Gloo AI 최고책임자 스틸 빌링스(Steele Billings) 등이 강연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기독교 OTT '풍당' 홈페이지나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5월 7일(수)까지 신청하면 참가비 40%를 할인해 준다(정가 10만 원).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를 할인해준다.

문의: 02-3275-9372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

5월 9일까지 가평우리마을 우리갤러리



예손 발달장애 화가들과 내빈들의 단체사진.

2025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 'The song of colors'가 막 올랐다. 5월 9일(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우리마을 우리갤러리에서 열린다.

가평우리마을은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설립한 회복의 공간이다.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을 통해 온누리복지재단과 분당우리교회의 장애인 사역에 대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4월 9일(수) 가평우리마을 우리갤러리에서 드렸다. 강은철 장로(온누리교회) 대표기도, 오경제 목사(분당우리교회) 말씀, 김학수 대표(가평우

리마을) 격려사,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오경제 목사는 설교에서 "이번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예손 작가들이 꿈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예손 발달장애 화가 초청전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세상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PS)' 개교 및 학생 모집

4월 30일까지 1차 원서접수, 4월 19일 오픈하우스

성경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국제대한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에서 4월 30일까지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원서접수는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하면 된다. 오는 8월 개교할 예정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있다. 5~8학

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의 환경과 시설, 커리큘럼 등을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4월 19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admissions@seoulprovidence.org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북 산불 피해 긴급구호 소감



/ 고대선 실장(NGO더멋진세상)

원팀(one team)과
하나님의 마음

봄기운으로 생명력이 넘쳐야 할 울창한 산 자락이 검게 그을려 죽음의 산이 되었고, 마을과 집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타버렸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양로원에서 지내며 무표정한 얼굴로 이름을 삭이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의 이번 긴급구호 활동은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지만, 그럼에도 작은 섬김에 고마워하며 웃음 지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긴급구호 활동에서는 구호품 배분과 함께 프로보노 밥차를 활용해 따뜻한 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살얼음이 어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세끼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함께한 청년들과 전문위원 장로님과 집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면서 피곤을 잊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섬김이 저녁 11시까지 이어진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마치 부흥회를 하듯 주방 가득 찬양소리가 가득했고, 피곤함 속에서도 청년들의 열

굴에는 웃음이, 손끝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팀원들을 돌아보며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귀했다.

NGO 더멋진세상 전문위원 장로님과 긴급구호팀장님과 함께 땀 흘리며 국을 푸시고, 구호품이 담긴 박스를 포장해서 옮겼는데, 그 모습도 감동이었다.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오신 전문위원 두 분은 음료와 치킨, 과일도 청년들을 격려하고, 뜨거운 기도로 힘을 실어주셨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룬 ‘원팀(one team)’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따뜻한 밥 한 끼와 물품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멀리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이 작지만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다. NGO 더멋진세상이 해야 할 일은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통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함께 서기를 기도한다.

■ 알콩달콩 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소망 성도(가명)

“주님, 우리가 부부입니다”

나이가 어느덧 50살이 되고 보니 아이들이 자란 것과 별개로 이뤄놓은 게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또 요즘 들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남편과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들 속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동료 목사님께 추천받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다녀오자”고 말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따라나섰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여행가는 기분이 들어서 설렜다. 우리 부부가 추천받은 프로그램은 ‘알콩달콩 부부학교’다. 어머니학교와 아버지학교는 들어봤는데,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처음 알았다. 자기소개 시간, 멘트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

“존경하는 남편 이맘을 형제(가명)의 아내 김소망 자매입니다”

사랑하지만 존경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온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결단했다. 강의와 조별 나눔에서는 내가 얼마나 내 위주로 생각하고 말했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좌절과 아픔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나에게 고마운 점과 미안한 점을 남편의

입술을 통해 들으면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신뢰 게임에서는 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김으로써 너무나 편안해지는 귀한 경험을 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쓰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덕분에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주님, 우리가 부부입니다.”

이 말을 항상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는 존경하는 남편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남편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매일 남편을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한다. 알콩달콩 부부학교에서 받은 귀한 섬김과 감동, 그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6조를 잘 섬겨주신 향기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본부 18기 부부학교 모집
일시: 6월 21일~7월 5일 매주 토
장소: 서대문구 열사랑교회
문의: 02- 2182-9114

■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간증



/ 김도임 성도(열린새신자예배)

고인물이 아니라 샘물!

나는 10년 넘게 ‘특별한초대 열린새신자예배’(이하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겼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이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열린새신자예배 섬김은 당시 담당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했다. 저녁 예배인데다가 새신자를 섬기는 자리라 설렘과 기대 못지않게 두려움이 컸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괜찮을까?’, ‘누군가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어느덧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심어와 새신자 교육 과정을 함께 섬겼는데, 귀한 시간이었다. 매주 새신자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 앞으로의 기대 등을 서로 나누었다. 하나님을 향한 새신자들의 갈급함과 사랑이 매번 내 마음을 울렸고, 예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줬다.

열린새신자예배에는 특별한 순간이 가득하

다. 일상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지만, 주일 저녁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다. 그 순간 부여주시는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고, 매일을 살아갈 힘을 준다.

1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나를 두고 종종 ‘고인물’이라는 농담을 하지만, 사실 나는 ‘샘물’이라고 믿는다. 매주 같은 자리인 듯하지만, 늘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고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매번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샘솟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선다. 스태프로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감사하게 하신다. 날마다 살아 숨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모집 분야: 심어, FD, 조영, 카메라, 새가족, 디자인, 드라마, 커뮤니케이션 등
문의: 02-570-7430

■ 양재 와이미션 참가자 간증



/ 강승연 성도(이촌공동체)

와이미션 수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즉 선택받은 몇몇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하는 봉사라고 생각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 갈망으로 인해 와이미션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와이미션 수업이 주말 저녁에 진행되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자고 스스로 설득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수업이 뭔가 비장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다. 여전히 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부

이제는 우리 차례

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고백한다. 바다 건너 외롭고 낯선 타지에서 온갖 질병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은 거룩한 삶이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온갖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온 열방,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는 사명을 주셨다. 선교사님들은 아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 후방에서 기도하며 후원해야겠다.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란노 **45**주년 기념

두란노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공모 주제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사진에 담아 나누어 주세요.

(#일상 #삶 #묵상 #감사 #은혜 #감동)

2025. 4. 1^{TUE} – 6. 30^{MON}

응모 대상 「생명의 삶」 독자 누구나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가작	5	상장 및 상금 5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입선	15	상장 및 상금 3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20만 원 상당)

두란노 창립 45주년 특별 이벤트

응모자 중 45명 추첨,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증정

응모 방법

QR코드로 온라인 접수

문의

durannoqt@duranno.com

